

11차시. 음주운전 사고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음주운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음주운전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벌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1. 개요 - 음주운전의 개념

1.1 음주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주취운전이라 한다.

1.2 음주운전 사고

- 2007년 12월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은 없으며 징역형의 실행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다.
- 주취운전은 상태별로 각각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

도수별 구분		1도	2도	3도	4도
측정치		0.05%~0.15%	0.16%~0.25%	0.26%~0.35%	0.36%이상
음주량		소주2잔	소주 6잔	소주 10잔	소주 2병
단순 음주 처벌	형벌	벌금 50~500만원	좌동	좌동	구속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0.05~0.09% 면허정지 100일 o 0.10%이상 면허취소 	면허취소	좌동	구속
음주 사고 처벌	형벌	형사입건	중상피해 사고 시 구속	경상피해 사고 시 구속	구속
	행정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0.05~0.09% - 면허정지 100일 -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o 0.10% 이상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면허취소



1.3 음주운전 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 ①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
- ② 광장 내 주차장에서 운전
- ③ 차량 전체가 주차 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2. 대표 사고유형

(1) 혈중 알코올이 떨어진 상황에서 운전시 사고 발생하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해도 아침 출근길 운전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를 떠나 술을 마셨을 경우 취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대를 처음부터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2) 대형건물 부속 주차장에서 음주한 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도로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음주운전죄로의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 폐쇄적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았던 판례도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감기약 복용 후 졸음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주취운전 사고에 해당?

- 그렇지 않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

대리운전 기사에게 가기 위해 건물 주차장 입구까지 직접 운전한 경우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해당한다. 주취운전한 자동차



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등).

4. Q&A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 상습 음주운전자 특히 3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에 한해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어렵다.

5. 안전가이드 Tip

- ① 사고유무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다.
- ②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 ③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④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다.
- ⑤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이용시에는 대리운전기사 가 오기 전 잠시 차량을 이동시켜서는 안되고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도록 한다.
- ⑥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한 경우 체내 혈중알콜농도는 남아있을 수 있기에, 출근길 운전을 자제한다.
- ⑦ 음주를 한 동료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챙겨준다.
- ⑧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 ⑨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112에 신고한다. 이때 음주운전 의심차량은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과도하게 넓은 반영으로 회전, 운전자의 안색으로 보아 술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차로에 걸쳐서 운전하는 차, 고성과 차내 소란을 일으켜 두르러지게 눈에 띄는 차,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 등이 해당한다. (출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료)